

尹眞秀 會長 停年紀念號

# 民事判例研究

(XLII)

民事判例研究會 編

傳英社

## 축하의 말씀

송 상 현\*

윤진수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봇을 들고 보니 솔직히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그가 어렵사리 모교에 전임교수로 부임했을 때 참으로 든든함을 느꼈고, 그가 학문적으로 성숙하여 국내외적 명성을 드높일 때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아 이 중요한 학문연구단체를 깔끔하게 이끌어 감에 감사하고도 깊은 신뢰감을 가졌다.

유능하고 모범적인 현역 법조인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인정받은 법원을 떠나 아무 뒷받침 없는 모교에 동지를 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학문 풍토에서도 한국가족법분야의 팔목할 만한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윤진수 교수의 노력과 정열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국 가족법이 일부 관습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고 양성평등이나 여성학 등의 견지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법학 본래의 뚜렷한 체계와 영역을 구축하여 국내외에 확실하게 제시한 공로는 그의 학문 활동 중 압권이다. 그는 진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품은 뛰어난 와룡(臥龍)과 봉추(鳳雛)로서 만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법학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재이다.

그가 유서 깊은 민사판례연구회의 4대 회장을 맡아 10여 년간 힘들게 이끌어 온 세월을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40여 년 전 법학 발전에 판례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몇 선각적 교수와 법관들이 세상의 명리를 초

---

\* 제2대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월하고 오로지 판례법학공부만을 위하여 탄생시킨 연구모임인 민사판례 연구회가 전공분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학회 운영의 풍토와 분위기를 쇄신하고 법학계와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학문 발전을 선도한 것은 불묘증사실이다. 다만 중도에 학회가 외부의 오해와 왜곡과 비난을 받아 잠시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오히려 윤진수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하고 오늘날 200여 명의 회원을 포용하여 매월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하는 한국의 대표적 학회로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이 나라의 법학 발전에 커다란 행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평소에 박람강기(博覽強記)하면서도 자기주장과 지식을 가볍게 내세우지 아니하면서 항상 매사에 균형감각 있고 차분하게 발휘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이제 그가 정년으로 교수직을 마감하고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직을 물러감에 있어서 이를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높은 학덕과 빛나는 공로를 기리고자 한 회원들이 금년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를 윤진수 회장 정년기념호로 만들어 현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의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곱삭은 정과 학문에의 혼신을 토대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가는 민사판례연구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윤진수 교수에게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이 작지만 아름다운 기획 행사가 평생을 두고 윤진수 선생이 구축한 학문적 역사(役事)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학자적 성좌(星座)가 더욱 빛을 찬란하게 빛하게 하기를 축원하며,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동료와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다.